

전북교육청 ‘브리지’ 논란

카드게임 교육 공교육 편입 검토
교원단체 “현장 부담만 가중” 우려
사교육 유발·형평성 논란 확산
교육청 “도입 결정된 사안 아니다”

〈1-上〉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AI 시대 창의융합 교육 모델로 생소한 ‘브리지(Bridge)’ 교육의 공교육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공론화 과정과 추진 배경을 두고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한국브리지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JB-BRIDGE’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 측은 학교자율시간과 놀봄학교 등을 연계한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브리지는 4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카드를 주고받으며 승부를 겨루는 일종의 카드 게임으로, 논리적 추론과 파트너 간 소통이 필수적인 ‘두뇌 스포츠’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카드 게임 기반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끌어들이는 것을 두고 짚어봐야 할 지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학교

현장은 이미 놀봄학교와 디지털 전환 등 산적한 현안으로 업무 부담이 극에 달했다”며 “충분한 검증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 유입은 일선 학교에 행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교육 유발 및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민간 단체 주도 프로그램이 제도권 안으로 안착할 경우, 학

교 안팎으로 사교육 수요를 자극해 지역별·학교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청 내부 관계자는 “특정 라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며 “이미 정규 교육과정 내에 논리적 사고를 기를 프로그램이 충분한 만

큼, 도입 확정에 앞서 철저한 실효성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브리지 교육의 즉각적인 도입을 확정한 자리는 아니다”며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학교 현장 적용 방안을 설명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한 자리”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동물의학품 특구 투자협약식 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차세대 동물의학품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 이원택 지사와 최정호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사업자로 새롭게 지정된 11개 기업 대표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도교육청, 정기인사 앞두고 ‘코드·보은 인사’ 우려 고조

교육감 취임 후 첫 대규모 교원 인사
하마평 속 내사람 행기 논란도

〈1-下〉취임 두 달을 맞은 천호성호가 각종 인사 논란과 교육행정 파행, 사법 리스크, 공교육 사유화 논란 등을 빚는 가운데, 주요 문제점을 10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7일 예정된 9월 1일자 정기인사 발표를 앞두고 전북 교육계의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천호성 교육감 취임 후 단행되는 사실상 첫 대규모 교원 인사로, 새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 기조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예정됐던 교육행정직 인사가 미뤄지며 한자

레 혼란을 겪었다.

이후 정책국장과 행정국장, 교원인사과장, 인사담당 장학관, 비서실장 등을 연달아 원포인트로 교체하며 대규모 인사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을 마쳤다는 분석이다.

본청에는 여전히 전임 교육감 시절 주요 정책을 입안·집행해 온 실무진이 포진해 있어, 이번 인사가 대대적인 ‘전임 색채 지우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본청 주요 보직과 국장 자리에 새 집행부의 색채를 입히기 위한 물갈이가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다만 개편의 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내부 조직의 안정을 해치고 불필요한 동요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요직인 교육국장 자리에는 최지훈 군산월명중학교 교

장인 유력하게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정 분야에 능통하고 인신위 전문위원을 지낸 실력파라는 평가 별개로, 초등 교사 출신 교육국장 발탁을 기대해온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에도 초등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주요 지역교육장 인선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인사로 대폭 교체될 예정인 주요 지역 교육장 하마평에 인수 위 및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다수 오르내리면서 주요 요직이 특정 인맥 중심으로 채워지는 분위기가.

특히 투명성 제고를 내걸고 도입된 ‘지역추천 공모제’ 대상 지역인 일부 지역 교육장 공모를 두고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른 유력 주자들이 특정 교원단체 출신이거나 선거 과정에서 밀접하게 활동했던 인

물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책석 위원장은 “교육국장부터 주요 교육장, 정책기획과장, 교원인사과장 등에 이르기까지 하마평에 오른 이들 면면을 보면 보은 인사나 캠프 인사 색채가 짙다”며 “공정성을 내세운 추천 공모제마저 실질적 의미가 바래진 채 ‘내 사람 행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새 교육감이 국정 철학에 맞는 진용을 꾸리는 것은 고유 권한이지만, 그 과정이 특정 캠프 출신 행기기로 비쳐서는 조직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7일 발표될 인사 명단이 객관적 능력 증명의 결과물이 될지, 아니면 ‘내 캠프 감싸기’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국 첫 동물의약품 특구 닷 올려 전북도 1,273억원 투자협약

11개 동물의약품 기업 협약식
익산·정읍 규제자유특구 출범
신약개발 실증·규제혁신 추진

전북도가 익산시, 정읍시 및 국내 동물의약품 기업들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지정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의 닷을 올렸다.

도는 6일 도청에서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와 최정호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특구사업자로 새롭게 지정된 (주)케어사이드, (주)케이팜스바이오 등 11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기업은 총 1,273억 원 규모의 투자와 137명 고용을 약속했다. 이들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6호)에 따라 익산·정읍 일원 특구로 이전해,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동물용 의약품의 기술 개발과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케어사이드가 1,050억 원, 케이팜스바이오와 에스엘바이젠이 각각 100억 원과 70억 원을 투입하는 등 투자가 잇따르며 특구 조성에 힘을 실었다.

/장정철 기자

도, 폭염·가뭄 대응 재난기금 25억 긴급 투입

전북도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축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25억2,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도 재난관리기금 17억6,000만원과 시·군 재난관리기금 7억6,000만원 등 총 25억2,000만원이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해 농업용수 확보, 축산농가 피해 예방, 안전취약시설 정밀진단 등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폭염 대응에는 도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투입한다. 야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생수와 얼음을 지역자율방재단과 봉사단체 등을 통해 지원하고 주요 도로 살수차 운영,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가뭄 대응에는 도와 시·군이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투입한다. 천수답과 밭, 들녘 말단부 등 가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중형관정 약 20공을 개발하고 양수기와 물백 등 장비를 지원한다. 하상굴착과 간이양수시설 설치를 통해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에는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와 시·군이 각각 2억5,000만원을 부담해 소규모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완화제 25톤을 공급한다.

집중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정읍시 칠보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도 도와 시·군이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투입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한다.

/장정철 기자

국가가 지원하는 첫 보험료 한번, 평생 연금이 카집니다

2027.1.1.
청년의 출발
국민연금
함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NPS 국민연금

고창 동촌 해상풍력 금융권 지원 본격화

도·고창군·금융권 업무협약 체결
전국 1호 지역인프라펀드 선정
총사업비 3,600억원 재원 확보
주민 이익 공유·RE100 기반 확대

전북도가 고창군, 금융권과 손잡고 도 내 첫 민간 주도 중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인 '동촌 해상풍력'의 추진을 위해 금융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원택 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고영철 산업중앙회장, 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장, 오희종 동촌풍력발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활용한 지역 산업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창 동촌 해상풍력은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일원 공유수면에 76.2MW(6MW×12기)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163GWh로 고창 군민 약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

이다. 이는 온실가스 연간 7만 톤 감축 효과로, 소나무 51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수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고창군은 행정 지원과 함께 대상 사업 발굴, RE100 기업 유치를 맡는다. 신흥과 우리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생산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사업 시행을 맡은 동촌풍력발전은 지역인프라펀드 첫 사업인 '고창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생 사례로도 주목 받는다.

고창군은 발주법에 따른 지원금 60억 원을 확보하게 되며,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해 향후 20년간 약 2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주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우리금융그룹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지역인프라펀드'의 전국 1호 사업으로 고창 동촌 해상풍력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전북도>

이를 통해 총사업비 3,6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확보된 금융 지원은 고창군이 추진하는 RE100 기업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활용된다. 도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함께 추진 중인 서남권 및 군산 해상풍력을 포함, 풍력 기저재 기업 유지와 지원항만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고창의 풍력 자원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촌 해상풍력이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 잡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해상풍력 기저재 기업 유지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농어촌공사와 합동점검
체험마을·관광농원·민박 대상
미흡 시설 즉시 시정·행정조치

전북도가 여름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도내 농촌관광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체

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하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합동점검은 이날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시군 자체점검과 전문용역 점검도 병행해 하절기 안전관리 전반을 살핀다.

특히 최근 폭염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시설과 각종 체험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시설물 안전성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비상대피 안내도 게시 등 안전관리 체계 ▲소화기·감지기 등 화재안전관리 상태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물놀이시설과 바비큐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식재료 관리 등 위생관리 상태 ▲사업자 실거주 여부와 미신고 객실 운영 등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

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기준에 미흡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군별 자체점검 결과와 개선사항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시군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시설별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한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경찰, 조직 명운 걸고 환골탈태해야"

중수청 출범 앞두고 쇄신 주문
"커진 권한만큼 공정 입증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중수청 개칭'에 따른 국민불신을 우려해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리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공소장이 경찰의 수사관서 소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며 "경찰관이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

그러면서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경찰의 자성을 촉구한 뒤에 "새로운 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다.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수청 개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발표한데 이어 5일에는 전국 18개 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김의겸, K-피지컬AI 전략 포럼 개최

글로벌 로봇파운드리 구축 논의
현대차 중심 제조AI 발전 모색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과제'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제조AI 강국으로의 도약모색하고,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와 미래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민국 글로벌로봇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김 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날 포럼의 핵심 주제는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이다. 피지컬AI 강국을 위해 정책마련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과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제조AI 강국으로의 도약모색하고,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와 미래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대표 발제는 현대차와 제조AX 전문



김의겸 의원

중소기업인 다인리서치가 발표했다. 토론에는 산업기술진흥원장, 로봇산업진흥원장, 서울대 AI로봇연구소장 교수, 전자기술연구원 AI연구소장이 참여하여 피지컬AI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법무법인 린에서는 로봇을 둘러싼 규제해소에 대해 중점 토론에 나섰다.

또한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 실무 과장과 함께 논의하며,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되짚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범정부적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라며 "실제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더위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폭염 안전 수칙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여름철 질병 조심하기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혁신 ‘본격’

전력수요 증가 대응 국민안전·인공지능 등 국가정책 적극 이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6일 검사체계 혁신과 국민안전 강화 위한 ‘국민안전점검회의’가 본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검사체계 구축 △운영 △검사원 역량 강화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 증가에 따른 검사 수요 대응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고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점수절차를 개선한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남화영 사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업무 절차

와 검사체계를 효율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춘 정기 검사와 선제적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는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에 발맞춰 전원을 끄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무정전 검사를 확대하고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춘 검사 업무를 혁신하고 있다.

더불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담자를 지정하고 발주처를 방문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지난 6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국민안전점검회의’에서 남화영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기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의한 전기설비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농촌진흥청 “가을감자 초기 관리가 핵심”

30~60g 통 씨감자 선택 부패·노출 피해 예방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6일 가을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통 씨감자 크기와 싹 발생 상태를 확인하고, 토양 수분과 파종 깊이 등 초기 재배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을 감자는 주로 고온다습한 8월에 심어 서리가 내린 뒤 수확한다.

파종 시기가 고온기 또는 장마와 겹치고 생육기간도 짧기 때문에, 부패를 줄이고 싹이 빠르고 고르게 나오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 감자를 재배할 때는 부패를 막기 위해 절단하지 않은 30~60g 정도의 통 씨감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봄 재배처럼 감자를 절단해 심으면 고온다습한 환경에 절단 부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상처 부위로 병원균이 침

입해 부패를 일으킬 수 있다.

선별한 씨감자는 파종 전에 충분히 싹을 틔우고, 파종 직전에는 싹이 고르게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씨감자의 휴면타파(잠 깨우기)가 되지 않았다면 싹이 늦게 더 초기 출현율*이 낮아지고 생육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다.

휴면기간이 짧고 별도의 휴면타파(잠 깨우기) 처리 없이도 재배할 수 있는 감자로는 2가지 품종 ‘추백’, ‘대지’, ‘은선’, ‘금선’ 등이 있다.

씨감자를 싹 틔울 때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감자를 1~2점 정도로 얇게 깔아서 관리한다.

파종 전에는 토양의 물 빠짐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장마나 집중호우 뒤 토양이 지나치게 습하면 토양 내 산소가 부족해 씨감자가 싹기 쉬우므로 물길을 먼저 정비한 뒤 흙이 적당한 마르면 파종한다.



씨감자는 윗부분에 흙이 약 5cm 정도 덮이도록 심는다. 이후 감자 싹이 올라오면 고랑의 흙을 5cm 정도 더 덮어준다.

적절한 흙덮기는 싹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되며, 토양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수분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또 강한 비로 흙이 씻겨 내려가거나 씨감자가 노출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광수 소장은 “가을감자는 통 씨감자를 이용해 야 8월의 고온과 장마에도 싹지 않고 싹이 잘 날 수 있다”며 “싹틔우기와 재배지 관리에도 힘써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농어촌公 전북지역본부, 농업가뭄 대응체계 돌입

저수지·양수장 등 가용 수자원 총동원

최근 강수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업가뭄 선제적 대응에 총력전에 돌입했다.

현재 전북 지역 관내 401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2%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년보다 19%가 부족한 61% 수준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역 농업인 영농피해 최소화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해 농업 안정화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가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 공급 지속 확인과 양수서류, 퇴수 재활용, 관정 활용 등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 7월 말부터 가뭄 상황 극복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전격 가동해 비상 체계 정비 및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전북 관내 가뭄 위기 저수지 및 용수 부족 지역 대한 긴급 현장점검과 다각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금년 누적강수량은 548mm로 평년 대비 69% 수준으로 이에 따라 공사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 농업인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용수이용 정보를 공유해 농업용수 절약,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장은 “현재 가뭄이 지속되고 특별한 비소식이 없는 위기 상황이나, 영농 마무리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최근 강수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업가뭄 선제적 대응에 총력전에 돌입했다. <사진=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차질이 없도록 대체수원 확보 등 비상대책 시행을 통해 농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근로자 폭염 안전 확보 ‘총력’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 작업여건 및 애로사항 청취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오늘까지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장해와 안전사고 예방, 현장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대근 사장은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상황을 살피고, 현장 근로자 및 관계자들과 만나 작업여건과 안전관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물·바람·그늘·휴식 등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폭염 단계별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시간 운영 여부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이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 및 현장 관계자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는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쿨도시, 쿨마스크, 얼음물 등 폭염 예방물품을 지원한다.

공사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폭염특보와 기상상황에 따라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라며 “공정이나 작업일정보다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기원 “폭염 대응 원예작물 사전 관리 중요”

사전관리 및 적기 방제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에서는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원예작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세심한 사전관리와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과수에서는 장마 이후 급격하게 토양 내 수분 변동과 온도 상승으로 과실 열과, 햇볕데임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열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관수로 토양 수분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과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잎과 열매에 염화칼슘 0.3%액을 일주일 간격으로 3~4회 엽면살포 해주는 것이 좋다.

햇볕데임은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잎, 열매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피해가 심하면 해당 부위가 손상되고 탄저병 등이 2차 감염되기 쉽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정 관수로 과습, 과건조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과실이 강한 직사광에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정지 전정에 주의한다.

노지 채소(고추 등)는 장마 이후 질소와 칼륨의 시비량이 많은 토양조건에 고온 건조가 겹치면 석회 흡수가 억제돼

석회결핍과 발생하므로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편이 좋고 예방 위주의 총채 벌레와 진딧물 등 바이러스 매개충 방제 하며, 잘 주변 잡초도 함께 제거해준다.

여름배추에서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땅과 맞닿은 부분의 잎자루와 줄기부터 발병해 결국 속까지 부패하는데 배수와 통풍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무름병 걸린 포기는 즉시 제거하고 약제 방제 시 등록 약제를 분양이 5~6매 이후에 7~10일 간격으로 살포하고 땅당은 부분까지 약제가 잘 묻도록 처리한다.

시설 채소에서는 하우스 내 천창창을 개방하고 환기팬 등을 이용해 환기를 시켜주며, 차광 등을 통해 시설 내부 온도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환가 루병, 가루이 등 병해충 등 예찰에 적기 방제 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윤대순 기술보급과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예찰해 예방 위주의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군산상의, 전북도의회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경제 현안 논의

군산상공회의소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군산) 의원들을 초청해 지역경제 현안과 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산지역 상공업체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도의원들과 공유하고, 지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산상공회의소는 도의원들에게 △새만금공역시(메가시티) 추진 △군산항 상시준설과 전북항만공사 설립 △전북 철도교통 인프라 혁신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 3건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각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필요성과 현황을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새만금공역시 추진과 군산항 경쟁력 강화,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은 개별 사업을 넘어 군산과 전북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현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공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산학연 연계 지원 프로그램>

전북TP ‘ILP 서비스 기술사업 맞춤형 지원’

기술경쟁력·신시장진출 2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재)전북테크노파크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형 ILP 서비스 기술사업과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전북TP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형 ILP(Industrial Liaison Program) 서비스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사업은 공공기술과 기업 기술수

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기술 고도화 지원 △지역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신시장 진출 지원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업은 전북도-전북TP 도내기업 기술사업과 촉진 및 산업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목적에 따른 기업별 고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북형 ILP 기술연결 참여 기업으로 매칭된 기술을 확보했거나 해당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속한다.

전북TP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7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필수품목과 자율품목으로 구성된다.

필수품목은 △기술전략 기획 △사업화 전략 기획 △시제품 제작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자율품목으로는 △기술이전료 △홍보·마케팅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검증(PoC) 등을 기업의 사업화 단계와 수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이규택 전북TP 원장은 “이번 사

업은 기술기획,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인증, 마케팅까지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TP 홈페이지 공고 확인 또는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에 문의하면 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창업기업, AI 신약개발 본격 ‘시동’

(주)홉스바이오사이언스 AI·머신러닝 기반 신약 설계 체계 구축

전북대학교 실험실 창업기업인 (주)홉스바이오사이언스(대표 이정환·생명과학과 교수)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인 ‘다온다 프로그램’ 지원 하에

최종 선정되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전환(AX)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프랑스 글로벌 기업 다쏘시스템즈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천연물 소재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 홉스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CRISPR/Cas9 육종 기술로 THC 함량을 85% 낮추고 CBD 함량을 최대 400% 높은 헵스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독자적 IP를 구축해 왔다. 회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쏘시스템즈의 ‘BIOVIA Discovery Studio’ 등을 활용한 3차원 분자모델링과 AI·머신러닝 기반의 ‘인 실리코(in silico)’ 신약 설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면 개선, 항비만, 신경계

질환 등의 천연물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연구 비용을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이정환 대표는 “AI 기술을 개발 전 과정에 접목해 AX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라이선싱 확대와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Pre-Series A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왕실기록문화공간’ 테마전

조선 왕실 기록문화 전시

전주국립박물관이 ‘왕실기록문화공간’을 기획·운영하며 조선왕조 기록문화유산 특별한 경험 테마전을 운영하고 있다.

6일 박경도 전주국립박물관장은 ‘왕실기록문화공간’ 테마전을 지난 2월 25일부터 박물관 상설전시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왕실기록문화공간’ 전시품으로 선보이는 조선왕조 기록문화유산은 △외규장각 의궤 △조선왕조실록 △안산부지도 △스기해기사 계첩 △승정원시화첩 등 총 20여 점에 이른다.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에, 의궤는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조선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간의 나랏일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부터 국가 중요한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남긴 ‘의궤’까지 조선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기록문화를

발전시켰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운영 중인 테마전시 기간 중 국립전주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매년 새로운 외규장각의궤를 만나며 조선 왕실의 정교한 기록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에 외규장각 의궤를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은 국립전주박물관이 유일하다.

‘왕실기록문화공간’ 전시 외규장각 의궤는 1786년 정조가 강화도 행궁에 지은 왕실 도서관인 외규장각에 보관됐던 왕실 기록물이다.

특히 외규장각 의궤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로 반출됐다가 145년 만인 2011년 우리나라로 돌아와 귀환 자체가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됐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기록은 미래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남기는 것으로 선조들이 남긴 기록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문화유산 국가차원 보존 및 활용 적극 노력”

‘조선 후기 불교건축물의 정수’로 평가 받고 있는 고창선운사 영산전이 국가 지정 보물로 승격돼 지정서 전달식이 열렸다.

6일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우 선운사(대한불교 조계종 24교구 본사) 주지스님께 ‘고창 선운사 영산전’의 보물 지정서를 전달했다.

“고창 선운사 영산전”은 대웅전과 함께 선운사를 대표하는 불전이다. 1474년(성종 5) 2층 장륙전(丈六殿)으로 창건된 이래 정유재란과 화재로 두 차례 소실되는 등 중건을 거듭했으며, 1713년(숙종 39) 2층 각황전(覺皇殿)으로 재건됐다가 1821년(순조 21) 단층으로 개축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영산전은 건립 과정에 대한 기록과 기존 건물의 부재가 다수 남아있고, 내부에는 1821년 개축 당시의 벽화가 남아있어 역사적·건축학적·미술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특히 중앙에 목조삼존불을, 좌우에 나한상을 봉안해 영산화상(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법한 모임)의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한 점에서도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아 이번 보물 지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영산전의 보물 지정으로 고창 선운사는 국가 지정 보물 9점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동백나무 숲 등 천연기념물과 다양한 국가유산을 품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유산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며 “고창군의



지난 6일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우 선운사 주지스님께 ‘고창 선운사 영산전’의 보물 지정서를 전달했다. <사진=고창군>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2026 군산 국가유산 야행’ 14일 개막

14~16일·21~22일 원도심 일원서 문화체험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오는 14일부터 16일, 21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 구 조선식량양단 등 원도심 일원 국가유산을 배경으로 ‘2026년 군산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화제를 맞는 ‘군산 국가유산 야행’은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야간 국가유산 활용사업이다.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군산만의 문화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역사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올해 행사는 주자 별로 주제를 달리한



<사진=군산시>

다. 첫째 주는 ‘수탈과 저항의 거리’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군산의 수탈과 항쟁의 역사적 흔적을 조명하고, 둘째 주는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문화와 생활상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야행은 구 조선식량양단,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해방굴, 구 군산세관 본관 등 원도심 국가유산 5개 공간을 연결해 진행된다.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주간 교육을 이수한 ‘군산야행지기’ 40명을 선발했으며, 영수증 이벤트와 야간 문화장터, 숙박시설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군산 역사 탐정단-그날의 기록을 따라서’는 1930년 중의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당시 군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추적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몰입형 역사체험 프로그램이다. 권역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신흥동

일본식 가옥 ‘빛의 정원’, 야간 특별 개방 및 내부 해설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대야사전’, ‘가배와 음악 한잔’, ‘그 시절, 우리의 군산’, ‘군산의 국가유산’, ‘내가 그린 군산 국가유산’, ‘군산 전기의 역사’, ‘등불, 야행을 밝히다’ △해방굴 ‘해방굴에 숨은 독립군을 지원하라’, ‘다 함께 만드는 해방굴’, ‘객주야장’,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이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11주년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과 구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역사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에게는 문화적 자부심을, 관광객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을, 지역에는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유산 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성왕과 미마지를 만나다”

익산시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익산 백제문화체험관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인 ‘백제의 왕과 인물’을 오는 29~30일에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백제의 왕과 인물’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매월 새로운 백제의 왕과 인물을 선정해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왕과 백제 문화를 일본에 전한 예술가 미마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성왕의 사비 천도와 정치·문화적 업적을 살펴보고 미마지가 중국에서 익힌 기악을 백제와 일본에 전한 과정을 배우며, 백제가 동아시아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체험을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대입 수시 대면 집중상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고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시 대면 집중상담’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상담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주진로진학센터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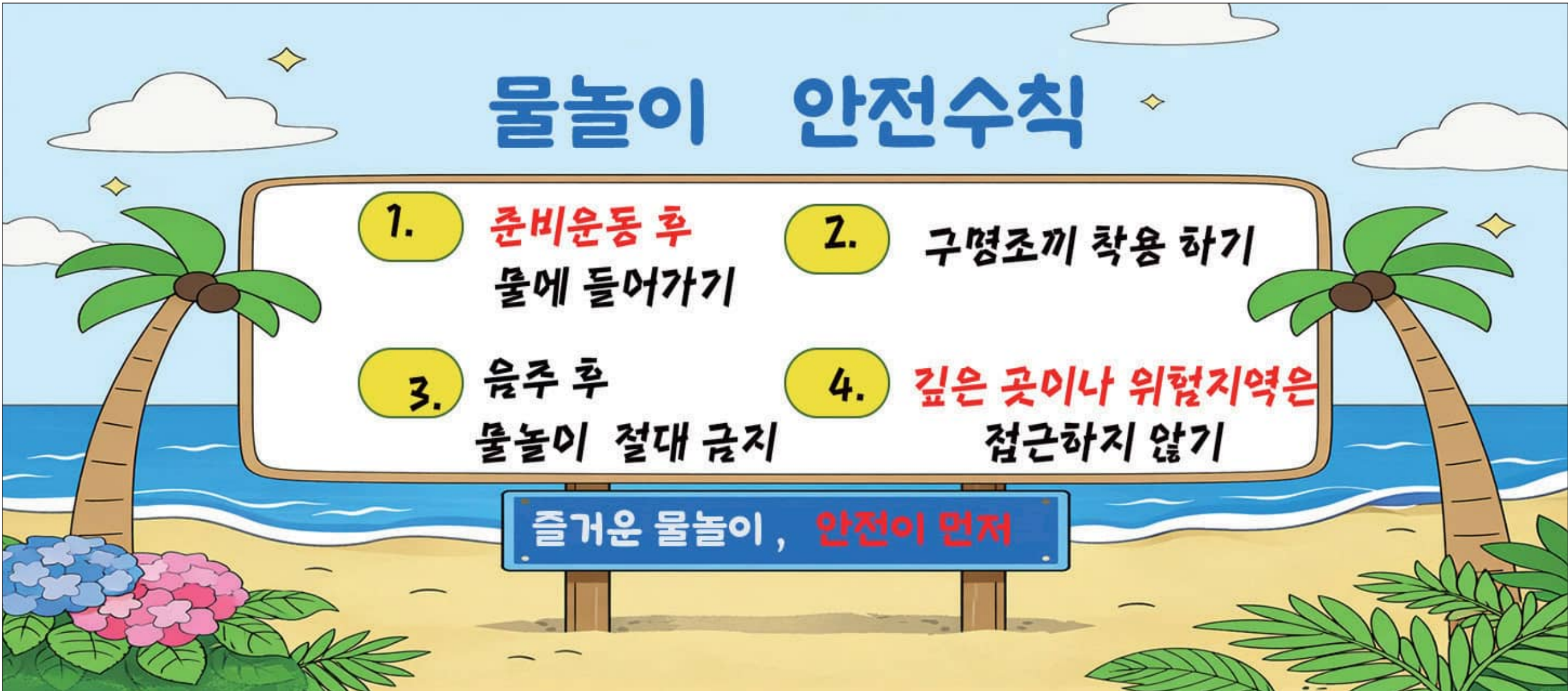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성적을 분석해 최적의 지원 전략을 세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규모는 총 400명으로, 대입진학지

도지원단 소속 교사 50여 명이 1인당 40분간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주진로진학센터는 평일 야간과 주말에 운영되며, 6개시 교육지원청은 오는 29일 토요일에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신청은 전북 진로진학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참가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덜고 자신에게 유리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시의회,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점검·애로사항 청취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장이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기 위해 지난 5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피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로당을 찾은 김충영 의장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냉방기기 가동 상태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충영 의장은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새야 새야 파랑새야’ 발레로 만난다… 정읍시 22일 공연

정읍시가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재해석한 창작 발레를 오는 22일 정읍사예술회관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전북발레시어터가 창작한 ‘늑두장군 전봉준 -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선보인다.

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의 삶과 신념, 억압받던 민중의 염원과 저항 정신을 발레의 움직임과 음악, 무대예술로 풀어낸다.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봉준이 꿈꿨던 평등한 세상과 공동체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담아낸다. 이를 통해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민중의 희망을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입장권은 오는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1만원이며, 정읍시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80% 할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라며 “이번 작품이 동학의 발상지인 정읍의 위상과 정신을 창작 예술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폭염 속 어르신 곁으로
군산시, 경로당 방문·점검

군산시 경암동장은 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 6개소를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로당 순회는 신임 동장으로서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에게 부담 인사를 드리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에 부임한 경암동장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물었다. 경로당은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점검에 주력했다. 경암동장은 “오늘날 경암동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가장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시원한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10~21일까지

정읍수성1 영구주택
입주자 200가구 모집

정읍시가 전 세대 새 단장을 마친 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200가구를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

모집 주택은 36.54㎡(11평형) 단일 주택형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누리망(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동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모집공고일인 지난 7월 20일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배점 등 입주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해 1세대당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한 세대가 중복 신청하면 신청 건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정읍수성1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 임대주택을 비워 인도해야 한다.

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은 1994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다. 지난해 3월까지 전 세대 리모델링을 마쳐 입주자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갖췄다.

시 관계자는 “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은 전 세대 리모델링을 마쳐 쾌적한 주거 공간을 갖춘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시민 안전 최우선 2(題)

폭염 대응 현장 활동 추진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연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과 농작물,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종료 시까지 점검반 6개 팀을 편성하고 2인 1조로 매일 무더위쉼터 현장 방문 예방활동과 함께 낮 시간대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점검반은 원예시설의 냉방·환기시설과 생육환경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폭염으로 인한 시설 내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폭염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축산농가 방문도 병행한다.

환기시설과 냉방설비 운영 상태, 급수시설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축사 내부 온도 저감과 충분한 급수량 확보, 차광시설 운영 등 폭염에 따

른 가축 피해 예방 관리요령을 함께 점검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관내 농업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일 문자를 발송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13개 읍면동과 함께 마을방송, 현장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농업인 폭염 행동요령 홍보와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폭염 대응 현장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문춘호 소장은 “폭염이 장기화되는 만큼, 농업인께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협력체계 강화

군산시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월부터 노인·장애인·의료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 결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과 서비스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전반에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 대상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의료기관 등 지역 내 통합돌봄 관련 기관이며, 기관별 사업 현황과 대상자 발굴 과정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연계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군산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총력’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익산시가 폭염 속 농작물 피해 최소화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폭염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영농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영농현장 기술지원단은 폭염대응반과 현장기술지원반으로 구성돼,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 컨설팅을 제공하고 온열질환 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

기술지원단은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와 협력해 작물별 생리장해와 병해충을 상시 예찰하고, 적기 방제와 생육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의 생육은 빨라지는 반면 쌀의 품질과



수량이 저하될 수 있고 벼멸구 등 병해충도 발생할 수 있어 농가의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폭염대응반은 무더위 시간대 농작업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이온음료를 전달하며 농업인의 건강 보호에 힘쓰고 있다.

강용석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이어가고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민·관·군·경 힘 모아 시민 지킨다”

을지연습 총점검

정읍시가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드론 테러 대응훈련과 주민 보호체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구청초회의실에서 ‘2026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제8098부대 3대대장과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의 추진계획과 기관별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드론 테러 대응 실제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차질 없

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주민 보호, 기관별 임무 수행 절차 등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위협 등 최근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민·관·군·경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기관별 현장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을지연습이 기관별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시민아카데미’ 본격 운영

실행력 있는 정책과제 발굴

익산시가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그릴 정책 발굴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월 개강식을 시작으로 시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인 ‘2026 익산 시민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익산 시민아카데미는 지역 현안을 시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민아카데미에는 7개 팀이 참여해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오는 9월까지 정책 발굴 활동을 이어간다.

개강식과 1차 워크숍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고도한눈에(愛)세계유산센터에서 열린다. 시민과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토론 촉진자 등이 참석해 운영 방향과 일정을 공유하고, 익산시가 추진 중인 백제 역사문화자원 활용 사업을 살펴본다.

이어 ‘고지도로 읽는 금마 이야기’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참여형 워크숍이 진행된다.

시는 내달까지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전문가 자문, 프로젝트 발표대회, 민관 실현회의 등을 운영하며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강희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이 백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해경, 해상 응급대응체계 가동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어청도와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2명을 경비함정과 닥터헬기 등을 이용해 신속히 이송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2분께 어청도에 거주하는 A씨(50대 남성)가 두통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보건지소장이 전문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위해 응급이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군산항으로 이송했다.

또한 전날인 5일 오후 3시 4분께에는 군산시 직도 북서방 약 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6톤급 어선 A호로부터 인도테시가 국적 선원 B씨(30대)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

됐다.

군산해경은 경비함정을 즉시 현장에 급파해 환자를 경비함정으로 옮긴 뒤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체온이 38.7도까지 상승하고 경련 증상을 보여 신속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북 닥터헬기와 연계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응급환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리 군산해경 수색구조계장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무더운 시간대 작업 자제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 취약계층 자립 디딤돌 2(題)

22개 기관 참여 장애인일자리 지원 ‘활발’	고산농협,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역량 강화
완주군이 22개 기관에 82명 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화하며 장애인 자립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사업 모집 규모는 총 82명(전일제 20명, 시간제 7명, 참여형 55명)으로, 현재 총 79명(전일제 19명, 시간제 7명, 참여형 53명)이 사업에 참여해 근무 중이다. 참여기관은 완주군청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5개소를 비롯해 공공시설 7개소 등 총 22개 기관이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행정업무 지원, 환경정비, 장애인등을 주차구역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완주군은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상시 모니터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지난 6일 결혼이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취업 홍보를 강화하고 결혼 발생 시 신속하게 총원해 참여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는 “행정업무 지원과 주차 계도 활동 등으로 일터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자립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되찾았다”며 “장애인이 당당하게 일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완주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구직자 마음건강 안전망 구축

‘새길 마음여정’ 매월 운영 취업 재도약 심리지원 강화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친 구직자들의 마음 안정을 돕고 정신건강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제 위기군 심리지원 프로그램 ‘새길 마음여정’을 지난 2월부터 매월 활발히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감, 불안, 노이가 자살 사고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남원시는 관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구직자들을 곁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총

촉한 안전망을 올해 연말까지 이어가고 있다.

‘새길 마음여정’ 대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 및 자살사고 스크리닝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선별 △정신건강 선별검사(PHQ-2, SBQ-R) 및 옴니핏(OMNIFIT) 스트레스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교육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마음건강주치의 상담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등 전문 치료를 즉시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는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스스로 마음 상

태를 점검할 수 있는 ‘무인 검진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전문 인력이 검진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상담·치료를 연결하는 한편,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펼쳐 구직자의 든든한 심리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업과 경제적 위기로 지친 구직자들이 매월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취업 의욕을 되찾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직자들이 용기를 얻고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발효테마파크, 방학 중 돌봄연계 체험 운영

체험교실 초등생 400여명 참여 발효전시·쿠깅체험 등 콘텐츠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여름방학 기간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효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창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방학 중 초등돌봄 우수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학교 밖 교육공간인 순창발효테마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발효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15곳의 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발효전시관·놀이관 투어 및 체험 △발효 쿠깅체험 △미생물과 발효 원리 교육 등으로, 전시·놀이·체험을 연계한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밖 교육모델로, 순창발효테마파크가 보유한 전시·체험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단은 이를 계기로 발효문화 기반



<사진=순창군>

교육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역 특화 교육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선윤숙 순창발효관광재단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순창의 발효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대강면, 폭염 속 노인일자리 실내교육 전환

실외활동 한시 중단…탄력 운영 직무역량·생활안전 교육 병행

대강면행정복지센터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기상청의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외활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대체활동으로 실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폭염 대응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폭염특보(폭

염경보) 발효 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실외활동을 중단하거나 조정하고, 실내에서 가능한 교육 및 안전활동 등으로 대체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강면행정복지센터는 실외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여름철 건강관리 및 수분 섭취 요령, 직무역량 강화교육,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교육 등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어지럼증, 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무더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실외활동 재개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강철 대강면장은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실외활동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추석 앞 예초기 자가정비 기술 교육

안전사용·점검요령 실습 중심 별초철 안전사고 예방

순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안전한 별초 작업을 위해 예초기 자가 정비 기술 교육을 추진한다.

별초 작업으로 예초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올바른 사용법과 사전 점검·정비 방법을 교육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스스로 농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예초기 자가 정비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25일과 27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비실에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순창군민이며, 교육 인원은 총 20명으로 기수별 10명씩 모집한다.

교육 신청은 총원 시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 농업기계 교육 담당자(063-650-5128)에게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의하면 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예초기 안전 사용 요령 △작업 전 점검 방법 △연료·기화기·절화 계통 등 주요 부품 관리 방법 △고장 원인 분석 및 응급 조치 방법 △자가 정비 실습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교육생이 평소 사용하는 본인 예초기를 직접 가져오면 정비 실습에 활용해 기계 상태를 점검하고 간단한 정비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별초 작업이 집중되면서 예초기 사용 미숙이나 사전 점검 부족으로 인한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예초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정비 기술을 익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 현장 목소리 청취

군수·농업인협회 간담회 개최 육성 정책 제안대회 준비 점검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4일 완주군 친환경농업인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농업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희태 군수와 관련 부서 담당자, 완주군친환경농업인협회 임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다음 달 9일 고산미소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6회 전국생물다양성대회’ 및 ‘제13회 전북친환경농업인대회’의 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협회 측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맞춰 완주군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유 군수에게 제안했다. 특히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 확대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납품 확대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친환경농업은 주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기후 위기 속에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출산가정 응원 ‘福’ 담은 기저귀가방 전달

북주머니봉사단 50개 제작 기탁 지역 임신부·출산가정 순차 전달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5일 치매안심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福을 담은 안심 기저귀가방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출산가정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출산과 육아를 시작하는 가정을 응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시보건소를 비롯해 남원시 시민소통담당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북주머니봉사단, 출산가정 등이 참석했다. 북주머니봉사단은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福을 담은 안심 기저귀가방’ 50개를 남원시보건소에 전달했으며, 보건소는 이를 지역 임신부와 출산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는 사업 취지 및 활동 소개, 인사말, 기저귀가방 전달식, 기념촬영,



<사진=남원시>

출산 응원 메시지 영상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저귀가방은 북주머니봉사단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육아에 필요한 실용성과 함께 출산가정을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를 시작하는 가정에 작은 응원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요양병원, 여름나기 ‘온정’…1천만원 기탁

순창요양병원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 순창군에 현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가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이 가족과 함께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관내 물놀이시설인 천웨이 어드벤처 워터파크 이용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선승 순창요양병원 이사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탁자의 뜻을 살려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7080 명곡 남원서 만난다 ‘남만콘서트 5080’ 공연

대중음악의 아련한 향수와 감동을 담은 ‘2026 남만콘서트 5080’ 남원 공연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원로 대중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대중문화 공연을 제공하고 세대 간 공감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공연은 개그맨 김종석의 사회로 진행되며, 남원 출신 가수 소명과 지역가수 금청을 비롯해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 받아온 김상희, 김상배, 문연주, 이명주, 소프라노 안성민이 출연해 7080세대의 추억을 담은 명곡과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남원시가 후원하며, 전석 무료로 운영된다. 별도의 예매 없이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공연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정보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내 남원소식-공연·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는 063)620-6287, 683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고산미소시장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현정)가 최근 완주군 고산면 고산미소시장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세이프틴’ 활동을 펼쳤다.

센터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소년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자 이번 단속 및 캠페인을 추진했다.

감시단은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고 완주군청, 완주경찰서,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아동음부즈퍼슨사무소가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 계도 활동과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박현정 센터장은 “휴가철은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며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업무부들께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미래라이온스클럽 종암마을 경로당 냉장고 후원

완주 미래라이온스클럽(회장 최지혜)이 냉장고가 고장 나 어려움을 겪던 완주군 고산면 종암마을 경로당에 새 냉장고를 후원하며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도왔다.

종암마을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풍 공간이자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지속되는 폭염 속에 기존 냉장고가 고장 나 식재료 보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완주 미래라이온스클럽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금금을 모아 냉장고를 전달했다.

완주미래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종암마을 주민들은 “여름철 가장 많이 찾는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완주미래라이온스클럽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시설 후원,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전북은행, 완주군에 ‘시원키트’ 60세트 기탁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완주군 관내 폭염 취약계층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날수 있도록 ‘시원(COOL)키트’ 나눔 행사를 펼치며 따뜻한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5일 군수실에서 전북은행 조인성 부행장, 김성두 지점장, 김승희 부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 2026 시원(COOL)키트 나눔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 후원은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북은행은 완주군이 추천한 폭염 취약계층 60명에게 전달해 달라며 300만 원 상당의 시원키트 60세트를 기탁했다.

전달된 시원키트는 무더위에 노출되기 쉬운 소외계층의 운영집합 예방과 쾌적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탁상 선풍기, 여름이불, 팔토시, 보냉백 등 실용적인 여름철 필수 용품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 금산면지사협 지역복지 위한 새 출발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5일 2층 다목적실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위원장 등 임원진을 새롭게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진의 임기는 이달부터 오는 2028년 7월까지 2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운영세칙 일부 개정과 임원 선출, 활동분과 구성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며, 협의체는 앞으로 3개 분과를 새롭게 구성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미정 김제시 금산면장은 “새롭게 선출된 임원진과 분과 위원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대한적십자 부안군협의회, 얼음물 나눔 봉사

재난구호 정신 이어가는 현장맞춤형 봉사

부안군은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안군협의회가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부안터미널 사거리 일대에서 폭염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단체와 기관의 뜻깊은 후원 및 기부로 마련된 얼음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단순히 목을 축이기 위한 물을 건네는 일회성을 넘어 대한적십자사가 수십 년간 다져온 재난구호 및 인도주의 실천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다.

그동안 부안군협의회는 각종 재난·재해 현장의 최전선에서 복구와 지원을 이끌어왔으며 취약계층 밀집한 나눔과 위기 가정 긴급 구호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봉사를 지속해 왔다.

형식적인 이벤트를 배제하고 주민들의 실생활 속 고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이들의 뚜렷한 이력은 이번 얼음물 나눔 봉사에 차별화된 무게감을 부여했다.

최민자 부안군협의회 회장은 “우리의 활동은 단순히 물 한 병을 건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주민들



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조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농업마이스터 오만종씨, 고창군에 장학금 350만원 기탁

고창군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마이스터 오만종씨가 지난 5일 (재)고창군장학재단에 장학금 35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오만종씨는 뛰어난 농업 기술과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농업마이스터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며 변함없는 지역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오만종씨는 “땅을 일구어 얻은 결실을 지역의 학생들과 나눌 수 있어 더없는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탁해 주신 소중한 뜻과 정성이 학생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한층 더 투명하고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시·김천시 농업인, 자매도시 간 우정으로 하나 되다

자매도시 간 교류행사 성료

군산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와 자매도시인 김천시연합회의 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군산시연합회가 김천시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이번에는 군산시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김천시연합회 회원 40여 명이 군산을 방문해 군산의 주요 농업 및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보

고, 군산시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양 지역의 농업 발전과 상생을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 지역 회원들은 교류의 시간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현황과 경험을 나누고, 농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군산시와 김천시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는 2013년부터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 행사를 이어 오고 농업인 간 우의를 다져왔다.

/군산=지송길 기자



(주)새논, 완주군에 성금 1,000만원 기탁

완주군 삼례읍 농공단지에 위치한 (주)새논(대표 백정열)이 올해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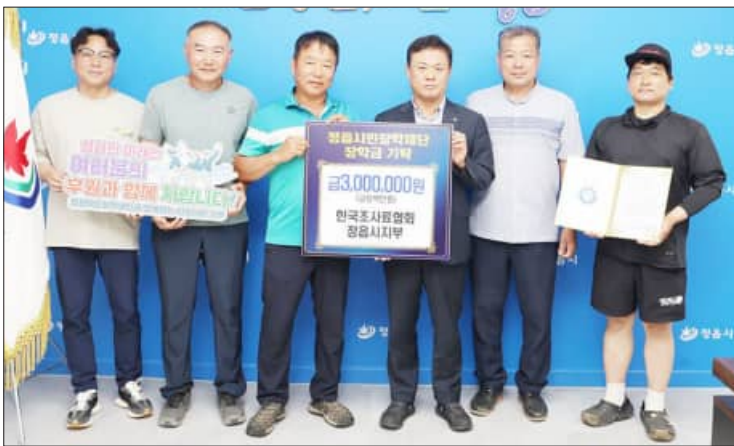
지난 5일 백정열 (주)새논 대표 등 관계자들은 완주군청을 찾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주)새논의 성금 전달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6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0만 원씩 꾸준히 기

부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백정열 (주)새논 대표는 “완주군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매년 성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력으로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더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시 공무원 합격자 25명, 후배 위해 장학금 기탁

한국조사회협회 정읍시지부와 정읍시 청년취업시험준비반 공무원시험 합격자 25명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했다.

6일 정읍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한국조사회협회 정읍시지부와 청년취업시험준비반 합격자들은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각각 3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조사회협회 정읍시지부는 가족에게 먹이는 국산 조사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다.

정읍시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을 통해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25명도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읍시로부터 받은 지원에 감사하는 마음과 합격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후배와 미래 인재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북 임실지사 복시관 어르신께 보양식 나눔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관장 정학성)은 지난달 24일 중복을 맞이하여 ‘중복맛이 보양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임실지사(지사장 김갑현)의 후원과 직원들의 협력으로 지역사회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삼계탕꾸러미를 전달하고 경로식당에서는 특식으로 추어탕을 대접하는 시간을 갖았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임실지사 김갑현 지사장은 “매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행사에 후원과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생하는 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 정학성 관장은 “앞으로 복지관도 어르신들을 더욱더 정성껏 보살피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해요!

횡단보도 이용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소방차, 응급차 등 긴급차량 진입에 방해	이륜차 안전모 착용 보호대까지 착용하여 더욱 안전하게!	문어발식 콘센트 금지 화재 위험! 분리하여 사용하자	중간밸브 잠그기 가스레인지 장시간 사용 시 환기도 필수!

〈一事一言〉



한 세대가 저물어 가는 풍경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지나다 문득 걸음을 멈춘 적이 있다. 구석 한편에 버려진 자개농 하나가 서 있었다.

잠 낫선 풍경이었다. 은빛 자개무늬는 여전히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는데, 자개농이 놓인 곳은 그 빛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다. 한때 집 안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던 가구가 가장 외진 자리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했다. 머리로는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알면서도 마음은 그 풍경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일주일이면 두세 번 시골을 오간다. 생활의 근거지는 전주에 있지만 문종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어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일이 어느새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 길에서 오래도록 익숙했던 풍경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모습을 자주 만난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등교하던 중학교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아직 남아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가방을 메고 오가는 아이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신 차고지에 들어선 노란 통학버스만 눈에 띈다. 가끔 찾아뵈던 친척 어르신들도 해가 바뀔 때마다 한 분, 두 분 자취를 감춘다.

도시 외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버스 종점 쉼터에서 장기와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던 얼굴들도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 누군가는 떠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빈 자리에 앉는다. 세월은 그렇게 소리 없이 사람과 풍경을 바꾸어 놓는다.

자개농도 오랜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

지 왔으리라.

한 시절 분명 자개농은 집안에서 가장 귀한 살림이었다. 안방 한쪽을 넓게 차지하며 살림의 중심이 되었고, 집안 형편을 보여 주는 자랑거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딸을 시집보내는 부모에게는 각별한 혼수품이었다. 혹여 시집살이에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편이 어려워도 빛을 내어 자개농을 마련해 주곤 했다. 그 안에는 옷과 이불만이 아니라 부모의 바람과 애뜻한 사랑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래서 자개농은 오랫동안 귀한 대접을 받았다. 이사를 여러 번 다녀도 다른 가구는 바꾸면서 자개농만은 끝내 싣고 다녔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닳아도 쉬이 버리지 못했다. 부모가 어렵게 마련해 준 혼수품이었고, 그 마음을 항상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이 담긴 생필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자개농이 이제는 분리수거장 한 편에 낯선 모습으로 덩그러니 놓여 있다.

그 곁에는 오래 쓰던 침대도 함께 나와 있다. 문득 저 침대를 쓰던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요양병원으로 옮겨 갔을 수도 있고, 이미 가족들의 기억 속으로 떠났을 수도 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가 평생 곁에 두었던 물건들만 조용히 남아있다.

세상이 달라지면서 불박이장이 자개농을 대신했고 생활은 훨씬 편리해졌다. 자개농은 무겁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오래된 가구가 되었다. 그러한 변화를 이해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은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 여전히 은빛으로 반짝이는 자개농과 그것이 놓인 쓸쓸한 풍경이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까닭이다.

버려지는 것은 낡은 가구 하나만이 아니다. 그 자개농에는 한 사람이 살아낸 시간들이 커켜어 스며 있다. 자식들의 옷을 넣고, 명절이면 새 이불을 꺼내고, 손주가 태어나면 작은 배냇저고리를 곱게 접어 넣었을 것이다. 기쁜 날도 있었고, 눈물 나는 날도 있었을 것이다. 자개농은 아무 말 없이 한 집안의 수많은 계절을 품어 왔다.

분리수거장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조금 늦추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처분해야 할 오래된 가구일 뿐이지만, 내게는 한 사람이 치열하게 살아낸 생애가 오롯이 담긴 풍경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물에도 생애가 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머물렀던 사물은 물건으로만 남지 않는다. 그 사람의 시간과 기억을 함께 품는다. 주인이 떠난 뒤에도 말없이 그 삶을 증언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나는 버려진 자개농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한때 가장 화려했던 것이 가장 쓸쓸한 자리에서 조용히 퇴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개농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아낸 이름 모를 삶에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한다.

한 세대가 저물어 가는 풍경 앞에서는 누구라도 발걸음을 떼기 쉽지 않다.

| 독자 투고 |

목격자 심폐소생술, 119 도착 전 생명을 이어주는 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구급차가 도착하는 순간을 떠올리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생명의 갈림길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

심정지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특별한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심정지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그 순간 곁에 있는 목격자다.

심장이 멈추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기능이 중단되고, 뇌는 산소 부족으로 빠르게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 특히 심정지

발생 후 4~5분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하지만 119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교통 상황, 거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심정지 현장을 경험했다. 같은 심정지 상황이라도 결과는 모두 달랐다. 어떤 환자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또 어떤 환자는 안타깝게도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처치가 아니라, '구급대 도착 전 누군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며, 망설임 없이 가슴압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심폐소생술은 전문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뒤, 환자의 가슴 중앙을

두 손으로 힘껏, 일정한 속도로 눌러주는 것부터 시작된다. 필요한 경우 119 신고를 통해 구급상황관리사의 안내를 받으며 누구나 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순간 망설인다. "내가 잘못하면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서툰 행동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다.

심정지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하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 시간이 빨라질수록 환자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작은 용기와 행동이 한 사람에게는 다시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주덕진서 조촌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소방사 신예지

사 설

페어플레이가 민주당을 살리고 전북을 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경선의 막이 올랐다. 경선은 단순히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정당의 품격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당이 국민 앞에서 얼마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은 선거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존중받고, 패자도 승복하며, 당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전북은 불과 얼마 전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큰 상처를 겪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 논란, 절차를 둘러싼 불신, 승복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상처는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신뢰를 흔들었고, 결국 도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당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선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후보들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전북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청년과 농촌, 산업과 복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놓고堂堂하게 경쟁해야 한

다. 도민은 싸움을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 주체의 책임도 막중하다. 어느 누구도 특혜를 받거나 차별을 받는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작은 의혹 하나가 전체 경선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깨끗한 승부가 가능하고, 그래야 결과에 대한 승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경선은 경쟁이지만 끝없는 대결이어서는 안 된다. 경선이 끝나면 승자는 겸손하게 손을 내밀고, 패자는 결과를 존중하며 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집권정당의 모습이다. 공정하지 못한 경선은 분열을 낳지만, 공정한 경선은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든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후보의 승리가 아니다. 누구도 결과를 의심하지 않는 깨끗한 경선, 원칙이 살아 있는 경쟁, 그리고 모두가 승복하는 민주주의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이번 경선에서 반드시 페어플레이를 실천해야 한다. 공정한 경선은 민주당을 살리고, 민주당의 신뢰는 전북을 살린다. 이번 경선이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까치집 / 이재무

까치집은 볼 때마다 빈집
저 까치 부부는 맞벌이인가 보다

해 뜨기 전 일 나가
별 총총한 밤 돌아오는가 보다

까치 아이들은 어디서 사나
시골집 홀로 된 할머니에 얹혀사나

허공에 걸린 빈집
심심한 바람이나 툭툭,
발길질하고

달빛이나 도둑처럼 들렀다 가고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8월 7일 금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8월 휴간 안내

8월11일(화) ~8월18일(화) 본지는 휴간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 드리며, 더 나은 지면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출향인의 고향사랑, 김제 금구면 나눔의 선순환

고향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자 삶의 뿌리가 시작된 곳이다.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며 살아가더라도 마음 한편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갖고 있다.

김제시 금구면과 시흥시의 따뜻한 인연 이야기도 이러한 고향 사랑에서 시작됐다. 오승석 시흥시 처음처럼봉사사회 회장(김제시 금구면 출신)은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수년째 고향 김제 금구면과 선행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해성산업(시흥시 소재 제조기업) 대표이자 봉사단체 리더로서 수십년간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 온 그는 자신이 터를 잡고 살고있는 시흥시와 고향 금구면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며 두 지역 간 아름다운 상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시흥시 처음처럼봉사사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부터 어르신 공경, 농산물 직거래, 자원봉사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서비스 활동을 펼치며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까지 발전하면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편집자주〉



봉사·기부·직거래로 잇는 도농 상생 어르신 돌봄부터 기부까지 온기 확산

소외된 이웃 결을 지키는 따뜻한 나눔

지역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같은 취약계층이다. 처음처럼봉사사회는 매년 명절마다 라면과 생필품, 송편 등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설과 추석이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나눔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제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됐다.

또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행복 꾸러미 지원 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담은 행복 꾸러미는 이웃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따뜻한 위로이자 공동체 속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어 경제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꾸준한 나눔 봉사활동은 후원 이상의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어르신 공경 문화 확산의 마중물

시흥시 봉사회 활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봉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은 공동체의 원로이자 지역역사를 간직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고령인구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고립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처럼봉사사회는 금구면 어르신 효 한마당 잔치 후원을 비롯해 경로당 간식 나눔, 이·미용 봉사, 삼계탕 나눔 행사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와 삼계탕 나눔행사는 시흥시 봉사회 회원들이 먼 거리에서 김제에 직접 내려와 재능기부를 펼친다.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 드리는 것은 물론 삼계탕, 소떡소떡, 토스트 등 정성이 담긴 식사까지 대접하는 봉사는 어르신에 대한 진심어린 공경과 사랑이 넘쳐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활동은 지역사회에 어르신을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대간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 온정을 쌓는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상생의 가교

처음처럼봉사사회 활동은 복지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 금구면과 시흥시를 연결하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2년 고구마 500상자 판매를 시작으로 누룽지 600상자와 고구마 700상자 판매까지 김제 금구면의 우수 농산물이 수도권 도시민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직거래를 통한 김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은 시흥시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으면서 도농 간 상생의 대표적인 선례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금구면은 시흥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바자회나 각종 행사에도 김제 농특산물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고구마, 감자, 쌀, 보리, 파프리카 등 김제 지역 대표 농산물을 판매하며 김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김제 알리미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눔이 만든 특별한 인연, 지역을 잇다!

지속적인 봉사와 교류는 자연스럽게 지역 간 교류로도 이어졌다. 금구면과 시흥시는 사랑의 쌀 기부를 비롯해 자원봉사 교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김제시자원봉사센터와 시흥시자원봉사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로 양 지역은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 사람의 애환심에서 시작된 실천이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더 큰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오승석 회장이 운영하는 해성산업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사례는 나눔의 가치가 소속 공동체 전반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고향 사랑이 지역의 미래를 밝히다!

오늘날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는 지방이 안고 있는 큰 과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출향인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봉사 참여는 지역에 큰 활력소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

고향을 잊지 않고 고향 주민들과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손길은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금구면에 이어지고 있는 시흥시의 처음처럼봉사회의 다양한 봉사와 교류활동은 출향인 한명의 고향에 대한 사랑과 선행봉사가 어떤 모습으로까지 지역에 파급효과를 낳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례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에서 시작된 꾸준한 작은 실천과 봉사가 어르신 공경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농산물 직거래와 자원봉사 교류를 통한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상생의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향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고향을 사랑하는 실천과 봉사의 마음들이 모일 때 지역은 더욱 따뜻해지고 더욱 단단해진다. 금구면에 이어지고 있는 나눔의 선순환은 오늘도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오승석 회장은 “고향 김제는 언제나 마음의 뿌리이자 출발점이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향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길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오늘도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이어 나간다.

/김제=온누리 기자

